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Read) · 기도(Pray) · 감사(Give Thanks)"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2021년 12월 26일(제513호)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600-0177 / FAX 925-237-8423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 단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올드레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평일 미사 후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평일 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입당\_114 봉헌\_220, 211 성체\_500, 496 파견\_113 / 해설\_김지용 예로니모 제1독서\_문성익 사도요한 제2독서\_김미정 안나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Anne Zadra 2nd Reader\_Theo Lee Prayer\_Anna Lee

**입당 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 집회 3,2-6.12-14<또는 1사무 1,20-22.24-28>**

Sirach 3:2-6, 12-14

**화답 송 | 시편 128(127),1-23.4-5(1)**

Psalms 128:1-2, 3, 4-5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Blessed are those who fear the Lord and walk in his ways.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Blessed is everyone who fears the LORD, who walks in his ways! For you shall eat the fruit of your handiwork; blessed shall you be, and favored.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Your wife shall be like a fruitful vine in the recesses of your

home; your children like olive plants around your table.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Behold, thus is the man blessed who fears the LORD.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may you see the prosperity of Jerusalem all the days of your life. ◎

**제2독서 | 콜로 3,12-21<또한 1요한 3,1-2.21-24>**

Colossians 3:12-21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Alleluia.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s;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

**복음 | 루카 2,41-52 Luke 2:41-52**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폰소, 이원숙 글라라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의 이른 죽음은 부모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아파하며 살아간다는 말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본당 자매님 한 분의 아기(가브리엘)가 태어나자마자 하느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본당의 모든 신부들과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했고, 남은 가족들은 서로 안아 주고 위로해 주며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가정, 공동체가 있기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교회는 성탄 팔일 축제 내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나자렛 성가정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 모범을 본받아 신앙 안에서 화목하게 가정생활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성가정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이 가정은 좋은 것으로만 가득하다는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상상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정은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촌 동네의 목수 집안이었기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머나먼 타향살이로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던 난민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치욕적인 십자가상의 죽음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했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 성

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 생활이 어렵고 힘겨웠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가정은 가난과 어려움, 고통 등 불행의 요소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다지도 세속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가정을 왜 성가정이라 부르면서 이 가정의 모범을 따르라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가정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순종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가정의 가장이 되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한 아들의 잉태 소식에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강생(하느님께서 자신을 낳추어 인간이 되심)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순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가정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충실히 걸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 공동체 안에서 동정과 호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고,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사랑하며, 평화 안에서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광휘베드로 신부 | 해외선교(프랑스)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b>Tri-Valley Orthodontics</b>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b>DAON</b> 한식 맛집 101 Town &amp; Country Dr. #C Danville, CA 94526 Tel 925-837-1027</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곳 <b>신세계 여행사</b>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 5분 묵상

성탄을 맞아 어느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 신부님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수 신부님, 오늘은 즐거운 성탄입니다! 우리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교수 신부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오늘이 성탄이라고? 성탄을 기념하지 말고 그냥 오늘이 25일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토록 존경하던 교수 신부님이 성탄을 이렇게 홀대한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기색을 본 교수 신부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늘이 아니라 성탄을 즐기지. 그들의 즐거움은 성탄 날 잠깐일 수밖에 없다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겐 성탄의 기쁨이 늘 끊임없다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은 또한 하늘과 땅이 서로 입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하느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유일한 모습과 맞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탄생하실 때만이 성탄은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1년 365일의 기쁨

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주님을 모신 구유가 되어 주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성탄의 삶을 살아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전달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 성체 조배 시간 안내

12월 매주 월, 오후 12시 45분 - 6시 30분  
수, 오후 12시 45분 - 5시  
장소: 소성전 제대 뒤편 조배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p> <p></p> <p>책성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p> <p>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p> <p><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b>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p> <p>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

-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찬미하며,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전합시다. 성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축하합니다.
-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 듬뿍 받으시는 복된 성탄 시기 지내시고, 새해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12월, 1월 주요 전례 일정

- 12월 28일(화): 미사 없음
- 12월 30일(목): 미사 없음
- 12월 31일(금): 송년 미사 겸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 미사, 오후 8시
- 1월 1일(토):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오전 9시 30분
- 1월 2일(일): 주님 공현 대축일
- 1월 4일(화): 미사 없음
- 1월 6일(목): 성시간
- 1월 9일(일): 주님 세례 축일

■ 판공성사 기간 연장 안내

- 아직 성사를 보지 못하신 신자들을 위하여 1월 30일(주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 시간: 평일 미사 및 주일 미사 전 30분간.
- 고해소 앞에 성사표(공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당 단체장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12월 26일(오늘) 오전 11시, Room A
- 대상: 사무위원, 구역장·반장, 재정위원, 제 단체 임원
- 본당 단체: 레지오 마리아, 울뜨레야, 요아킴·안나회, 성모회, 요셉회, 성가대, 복사단, 제대 봉사, 독서단, 해설단, 주일학교 교사회, PTA, 청소년 복사단 등

■ 본당 주소 변경 안내

- 본당으로 우편물을 발송 하실 경우 아래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 12월 주일학교 겨울방학

- 겨울방학: 12월 26일(2021) ~ 1월 9일(2022)
- 개학: 1월 16일(2022)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2,865	\$449	\$5,145	\$120	\$130	\$8,709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대수(7-12), 김성치(12), 김용재(1-12), 박주암(12), 방규성(7-12), 오택만(12), 이규호(12), 이상덕(1-12), 이태원(12), 조원정(12), 조현재(5-12), 주영근(4-12), 홍석제(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2), 주영근(4-12), 홍석제(12)

- Bishop's Appeal

김성치(12), 이태원(12), 주영근(4-12), 홍석제(12)

- 성전기금(Church Building Fund): 김철진

- 감사헌금: 최은영, 주일학교 고등부



참된 형제애 For true human fraternity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 COVID-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각 가정에서, 성당에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냅시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0분
- 평일(화, 목, 금):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